

日本天理大學 朝鮮學會主催

第十二次 韓國學術研究大會의 參席報告

崔 虎 鎭

이번에 李丙湫博士를 비롯한 韓國學者 10名에게 學會年次大會에 招請을 한 日本 奈良에 있는 天理大學의 「朝鮮學會」는 지금으로부터 10年前『朝鮮文化를 研究 闡明하고 나아가서는 韓・日兩國文化의 交流發展에 寄與함과 더불어 世界學界의 新分野의 開拓에 貢獻하는 것을 目的으로』(會則第1條)하고 戰前 京城帝國大學 名譽教授이었던 高橋亨博士를 代表者로 하여 日本의 韓國文化研究學會로서 發足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學會」의 會員도 『朝鮮文化의 研究에 關與한 者 또는 現在 하고 있는 者』로서 構成되어 있는 것이다. 發足以後 每年 年次大會를 가졌으며 研究發表를 하고 그리고 年4회씩 菊版3百餘面の 「朝鮮學報」를 發刊하여 世界各國의 研究機關과 交換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學會의 成果는 지금도 韓國本土 以外에서 發刊되는 韓國研究專門學術誌로는 世界 唯一한 것이 되었다 한다.

年次大會 첫째날 會長의 말에 의하면 今番 實現을 본 韓國學者招請計劃은 2, 3年前부터 計劃되었었으며 兩國政府의 積極의인 理解下에 이루어졌고 이번 12次年次大會를 「學會發足後 歷史的 劃期的인」大會라고 그 性格을 強調하였다. 특히 會長의 말에 있어서 우리들이 感銘깊었던 것은 이번 大會期中에 東京에서는 政治的인 「韓日會談」이 進行되고 있는데 이곳 「天理」에서는 韓國學者가 參席하여 韓・日文化交流를 하고 있어 참으로 意義깊다는 것을 또한 力說하는 것을 보았다. 우선 이번에 發刊된 朝鮮學報를 紹介하면 第12, 22輯合本으로 菊版 1400面に 이르는 龍大한 論文集으로 副題도 「扶桑・權域學術文化交流特集」이라고 붙어 있다. 解放後 처음의 韓・日學者에 의한 論文集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韓國人學者 10餘名과 日本人學者 30餘名이 韓國語・英語・日本語로 自己研究를 發表하고 있다.

다음에 年次大會에 參席하여 見聞한 것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우리나라에 관한 研究는 韓國學者 4名 日本學者 10餘名에 의하여 韓國語學, 韓國文學에 관한 研究 5題, 韓國史學에 관한 研究가 9題 發表되었다. 韓國史學에 관한 것으로 그 內容을 時代別로 본다면 新羅時代것으로 3題, 高麗時代의 것으로 1題, 李朝의 것으로 5題 現代(解放後)의 것으로 1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렇게 보아 오면 李朝時代의 研究가 가장 活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表現한다면 日本學者로서 解放前 京城大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文化를 研究한 老學者나 解放後 우리나라의 文化를 研究하는 少壯學者나 다 같이 그 態度에 있어서 韓國學者들의 批評을 달게 받아 들이겠다는것, 解放前의 研究에 是謬가 있었다는 것과 특히 少壯學者들은 韓國學者 앞에서는 自信이 없다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研究의 中間發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되푸리하는 口調로 發表하는 學者도 있었다.

그리고 解放前의 老學者들은 大部分 漢籍에 의하여서만 文獻을 驅使하였다. 우리나라의 말을 모르고 研究한 것이 大部分인데 대하여 戰後 少壯學者들은 우리나라 말을 우선 배우고 研究하고 그런 後 韓國文化를 「오리지날」에 의하여 研究하고 있는 印象을 나에게 주었다.

나는 특히 韓國社會經濟史研究에 至大한 關心을 가졌었으므로 參席中 나에게 가장 印象깊은 研究發表의 하나를 紹介하겠다. 名古屋大學教授인 中村榮孝博士의 「壬辰戰爭의 義兵에 관하여」라는 研究發表에 있어서 豊臣秀吉의 大陸侵入失敗原因은 日本의 海軍未準備와 韓國의 義兵活動에 있었고 지금까지의 研究에 있어서는 義兵活動이 盲點이었다고 말하고 義兵評價에 있어서는 韓國民族抵抗 民族團結 祖國戰爭이라는 意識이 强하였다는 것을 指摘하고 다음에는 當時의 韓國의 社會的 狀態를 分析하고 義兵의 主體는 官人支配層과 儒林層이었으며 官人支配層에 民兵이 編入되었다고 指摘하였다. 이러한 發表에 대하여 가장 많은 質疑應答이 活潑하게 展開되었다. 그리하여 「義兵評價에는 問題가 許多하다」고 끝을 맺었던 것이다.